

보성서도 집단 설사 환자

13명 증세...600여명 가검물 분석

나주에 이어 보성에서도 설사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 보건 당국이 역학 조사에 나섰다.

19일 보성군 보건소에 따르면 웅치면 대산마을에서 김모(여·57)씨 등 13명이 최근 잇따라 설사 증세를 보였다.

보건소 측은 증세가 심한 6명을 보성 아산병원에서 격리 수용하고, 정밀검사에 들어갔다. 또 마을 주민 200여 명과 인근 초·중학교 학생 및 교직원 등 모두 600여 명의 가검물을 채취,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환자가 20여 일 사이에 발생, 정확한 원인을 아직 알 수 없으나 세균성 이질 등 최악의 상황도 대비하고 있다”면서 “외출 후 손을 꼭 씻고, 화장실을 수시로 청소할 것”을 당부했다.

앞서 나주에서도 H유치원생 김모(4)군 등 7명이 지난 14일 세균성 이질 양성반응을 보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kwangju.co.kr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 “영화 ‘왕의 남자’ 대사 저작권 침해 아니다”

법원 판결 영화 ‘왕의 남자’에 나오는 장면 중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라는 대사는 창작성이 없는 흔한 표현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주기동 부장판사)는 19일 희곡 ‘키스’의 작가인 한국예술종합학교 윤영선 교수가 영화 ‘왕의 남자’의 대사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제작·배급사인 ㈜이클릭체스와 ㈜씨네월드, 감독 이준익씨 등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어문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창작성이 있는 표현’에 해당해야 하나 ‘왕의 남자’ 대사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으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창작성 표현이라고 볼 수 없고 시(詩) 등 다른 작품에서도 유사한 표현들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왕의 남자’의 원작 희곡인 ‘이(爾)’의 저작자인 김태웅씨가 방송 등에 출연해 ‘나 여기 있고, 너 거기 있지’라는 대사를 윤 교수의 ‘키스’에서 빌려온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이는 김태웅씨의 개인적인 견해에 불과하고 이를 가지고 ‘왕의 남자’에서도 같은 취지로 사용됐다고 추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논술·입시설명회 꼭 챙겨라”

광주일보·대성학원 2차례 개최...관련 정보 중점 분석 제공

대학 입시 정보전이 본격 시작됐다.

주요 입시학원과 대학들이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잇따라 논술설명회와 입시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이다.

광주 대성학원은 광주일보와 공동으로 오는 22일 오후 2시 광주시 동구 서석동 KT광주정보통신센터 3층 대강당에서 ‘2007학년도 정시 대비 논술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설명회는 올 수능이 대체로 평이해 변별력이 떨어지면서 논술 등 대학별 고사가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열리는 것으로, 수도권 수험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와 교육여건이 취약한 지역 학생들이 논술시험을 대비하

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중앙학원 조성식 입시전략팀장이 ‘정시논술 어떻게 준비할까’를 주제로 강의를 하며 ‘정시 논술 전략 자료집’도 배포된다.

광주 대성학원은 또 광주일보와 공동으로 오는 12월18일 오후 2시 KT광주정보통신센터에서 ‘2007학년도 대입 설명회’를 연다. 수능성적이 개별 통보(12월13일)되고 대학별 배치기준표가 작성될 시점에 맞춰 열리는 대입 설명회에서는 서울 대성학원 이영덕 진학실장이 강사로 나서 입시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설명한다. 특히 광주 대성학원 우부남 진학실장이 광주·전남지역 대학 관련 정보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제공한다.

서울 중앙학원도 23일 오후 5시 KBC 광주방송 컨벤션홀에서 ‘2007 정시모집 지원전략 설명회’를 갖는다. 김영일 원장이 강사로 나오며 ‘2007 대입 정시지원 전략 대학 배치참고표’와 ‘대학별 지원 전략 및 구술 대비 자료집’이 배포된다.

대학들의 입시설명회도 잇따라, 고려대·서강대·성균관대·이화여대·중앙대·한양대 등 서울지역 주요 6개 대학 공동 설명회가 26일 오후 2시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여성발전센터에서 개최된다. 각 대학 입학처장이 나와 대학별 정시모집 요강, 논술채점 기준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

전남대는 29일 광주지역 고교 교장·

교감·진학실장 등을 초청해 입학전형 설명회를 갖고 우수 학생을 많이 보내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 12월4일부터 12일까지 광주·전남지역 49개교 수험생 1만1천여 명을 학교로 초청해 입학전형을 설명한다.

조선대도 22일부터 12월6일까지 광주·전남지역 32개교 수험생 6천400여 명을 대상으로 입시 설명회를 연다.

광주 대성학원 김현철 경영기획실장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남보다 한 발 앞서 지원전략을 세우기 위해 논술 및 입시 설명회를 최대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입시정보 수집을 위한 ‘정보전’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태종기자 hwangtae@kwangju.co.kr



‘한미 FTA 저지’ 도심 횡설수설 시위

‘한미 FTA 저지를 위한 광주·전남 운동본부’(공동대표 허연 등 13인·이하 운동본부) 회원 40여 명이 지난 18일 저녁 8시에 광주시 동구 대인시장 앞 도로에서 횡설수설 시위를 벌이고 있다.

회원들은 경찰이 강력저지하며 연행하려 하자 모두 해산 했으며, 양측간에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운동본부는 이날 횡설수설 시위에 앞서 광주·동구 금남로 광주일보 빌딩 앞(2.5km)까지 행진을 하며, ‘한미 FTA협상의 불합리성’에 대한 선전활동을 펼쳤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우회도로 안내 없이 주말 포장공사

나주 남평교 구간 체증 극심

나들이객 2~3시간 ‘고통’

광주~목포 간 도로 남평교 포장공사가 차량 우회 등 별다른 조치 없이 진행돼, 주말 이 도로를 이용하던 나들이객들이 길에서 2~3시간을 보내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건설교통부 산하 ‘광주국도유지 건설사무소’는 지난 18일 남평교 왕복 4차선 도로(연장 270m)에 대한 포장공사를 시작했다. 법진건설(주)이 시행하는 이 공

사는 오전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됐으며, 상·하행선 1개 차선을 각각 통제하며 진행됐다.

하지만 공사로 길이 좁아지면서 광주~목포·나주 등을 오가던 차량이 크게 밀렸고, 남평교 인근을 통과하는데만 2시간이 넘게 걸렸다. 운전자들은 공사 현장 500m 이전에 ‘교통체증 우려’라는 안내문이 설치돼 있을 뿐, 우회도로 안내 등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날 목포에서 광주로 올라오던 이모

(43·광주시 동구 운림동)씨는 “목포와 영암·강진에서 올라오는 차량이 한데 몰리는 나주 삼거리에서 광주 광산구로 향하는 길로 차량을 유도했다면 체증이 크게 줄었을 것”이라며 “장시간 차에 있던 운전자들이 화장을 가지 못해 도로에 응변을 보는 등 난장판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광주국도유지 건설사무소” 관계자는 “교통 체증을 피하기 위해 주말에 공사를 시작했는데, 나들이객들로 인해 오히려 길이 더 막힌 것 같다”면서 “앞으로는 차량 통행이 뜸한 밤에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국도유지 건설사무소”는 다음달 12일까지 3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남평교 4차선에 대한 포장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임주형기자 jhlhm@kwangju.co.kr

주말 교통사고 잇따라

지난 18일 오후 6시25분께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응봉 I.C 인근에서 ‘74라91××’호(운전자 전모·남·33) 관광버스가 ‘광주1그74××’호(운전자·염모·여·40) 프라이드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차량 8대가 잇따라 충돌했다. 이 사고로 프라이드 승용차 운전자 염씨가 숨지고 다른 차량 운전자 2명이 부상을 입고 광주 현대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오후 2시30분께 여수시 둔덕동 N주유소 앞에서 ‘전남32라87××’호(운전자 이모·20) 쏘렌토 승합차와 ‘78시59××’호(운전자 김모·40)로디우스 승합차가 정면 충돌, 쏘렌토 승합차에 타고 있던 최모(여·20)씨 등 2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나원침 (6980) 김창두



빈 집 절도 20대 검거

광주 북부경찰은 19일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담을 넘어 현금 등 70만원 상당을 훔친 홍모(24·광주시 북구 신안동)씨를 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운 없는 도둑’ 하필 경찰 집 털다

○빈집을 상습적으로 털던 40대 도둑이 하필이면 잘못 경찰관의 집에 들어갔다 갈다.

○19일 서울 방배경찰에 따르면 운모(48)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시 서초구 방배2동에 있는 방배경찰서 교통지도계 김만형(45) 경사의 집에 침입하려다가 김 경사에게 붙잡혔다는 것.

○운씨는 이날 오후 1시께 김 경사의 집 인근 최모(67)씨의 집에서 현금 60만 원을 훔쳤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김 경사는 “운씨가 우리집 초인종을 누른 뒤 엉뚱한 사람을 찾자 ‘경찰의 직감’으로 수상한 생각이 들어 검거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법원은 생명을 씁니다”

뇌·심혈관 질환을 예방합시다

뇌·심혈관계 질환이란?

뇌·심혈관계 질환이란 뇌 및 심혈관계에 관하여, 혈액이 혈관을 따라 흐를 수 없게 되거나 뇌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질환을 총칭하는 것으로, 뇌졸중, 허혈성 심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만성 신장 질환, 흡연, 과음,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뇌·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

- 정기, 흡연, 자면서 음주, 과음, 운동 실시
- 균형 영양 섭취,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병 관리
- 금연과 금주는 필수
- 생활양식 개선을 권유
- 고혈압, 당뇨병, 지질, 비만, 과체중, 비만, 고지혈증, 흡연, 과음, 스트레스 관리
- 고지혈증 치료에 중점을 두면

한국뇌졸중예방센터
광주지역본부